

순천 매산등, ‘원도심 치유 관광’ 메카 조성한다

3~10월 생생국가유산 활용사업 전개
여수·구례 잇는 한국 성지순례길 완성



코잇 선교사 가옥

순천시가 근대기독교 유산의 보고인 매산등(매곡동 일원)을 종교 유적지를 넘어 현대인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원도심 치유 관광’의 메카로 조성한다. 9월 순천시에 따르면 매산등은 20세기 초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터를 잡은 호남 근대화의 심장부였다. 이곳에는 전남도 문화유산자료인 코잇 선교사 가옥,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구 순천선교부 어린이학교, 매산중학교 매산관 등 20여 개의 근현대 유산이 유기적으로 연결됐다. 시는 지난 2024년 이러한 유산들을

여여 각각의 서사를 담은 ‘매산등 성지순례길’을 구축했다. 조지와초기념관 옆에 문을 연 방문자센터는 상시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광객들에게 이곳의 가치를 전파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100여년 전 서양 선교사들이 직접 가꾼 서양식 정원과 건축물들은 당시 불모지였던 이곳에 뿌리내린 교육, 의료, 돌봄의 역사이며,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한국적인 풍경 속에서 이국적인 평온함을 선사하는 ‘치유의 공간’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과거 배움과 치료, 돌봄이 이뤄졌

던 이곳의 역사적 상징성을 현대적인 정서 회복 서비스와 결합해 역사 보존과 공간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시는 그동안 매산등 선교유적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문화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4년은 순천 원도심의 대표 축제인 ‘국가유산 야행’의 개막식과 주요 행사를 매산등 선교유적지에서 개최했고, 지난해는 선교마을 내 핵심 유산인 ‘코잇 선교사 가옥’에서 마을 주민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최초의 건물 활용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시의 최종 목적지는 매산등을 기점으로 구례(선교사 수양지)와 여수(순양원 목사 유적지)를 잇는 한국형 성지순례길

‘K-순례길’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는 특정 종교의 틀을 벗어나, 근대사의 아픔을 치유로 승화시킨 순천만의 독보적인 문화유산 모델이다. 이는 순천의 원도심 활성화를 넘어 전남 동부권 전체의 관광 지형을 바꿀 것이다. 순천 매산등은 근대 교육과 의료의 시작된 ‘희망의 땅’으로서, 순천기독교역사 박물관과 선교사 가옥을 중심으로 현대인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정서적 회복’ 프로그램을 담당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매산등은 순천의 근대 교육과 의료의 시작된 뿌리 깊은 공간이다”며 “이곳을 시민 누구나 머물며 위로받을 수 있는 순천형 치유 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원도심 활성화의 강력한 마중물로 삼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식 기자 2556pk@gwangnam.co.kr

광양, 내달 4일까지 ‘시민과 대화’

12개 읍·면·동 순차 진행

광양시는 지난 3일 중마동을 시작으로 진상면과 진월면에 이어 3월 4일까지 12개 읍·면·동 가운데 9개 읍·면·동에서 ‘2026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한다. 시민과의 대화는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시정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올해에는 광양시장이 직접 시정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지난해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보고와 읍·면·동별 주요 사업 현황을 공유한 뒤 시민들의 건의와 질의에 답한 후, 사회복지시설이나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

장에서 시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자리는 연령과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시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과의 대화 전 과정을 광양시 공식 유튜브 채널 ‘광양시청터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시민과의 대화는 시정의 방향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현장에서 제시되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 듣고 깊이 고민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광양시는 지난 3일 중마동을 시작으로 진상면과 진월면에 이어 3월 4일까지 12개 읍·면·동 가운데 9개 읍·면·동에서 ‘2026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한다.

보성다향대축제, 문화관광 자산 인정받아

문체부 ‘로컬 100’ 선정…콘텐츠 고도화

보성다향대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로컬 100(Local 100)’에 선정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문화관광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로컬 100은 문체부가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이 야기를 기반으로 지역성을 대표하면서도 관광·산업·콘텐츠로 확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 로컬 자산을 발굴·선정하는 사업이다. 보성다향대축제는 보성의 대표 자원인 차(茶)와 계단식 차밭 경관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콘텐츠, 안정적인 운영 체계,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프로그램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로컬 100’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계단식 차밭을 무대로 한 프로그램과 전통 차문화의 현대적 재해석, 세대와 국적을 아우르는 공연·체험 콘텐츠는 보성다향대축제를 지역 축제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차 문화 관광축제로 성장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이 평가에 반영됐다.군은 이번 ‘로컬 100’ 선정을 계기로 보성다향대축제를 지역의 상징 콘텐츠로 더욱 고도화하고, 차 문화·관광·산업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문화관광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성만의 차별화된 차 문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장흥군 직원들과 토요시장 상인회 관계자들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물품을 직접 구매하며 소비 촉진에 앞장섰다.

“전통시장서 설 준비하세요”

장흥, 장보기로 지역경제 회복 도모

장흥군은 최근 토요시장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물가안정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번 캠페인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함께 참여한 장흥군 직원들과

토요시장 상인회 관계자들은 전통시장을 찾아 물품을 직접 구매하며 소비 촉진에 앞장섰다. 현장에서는 바가지요금 근절, 가격표시제 준수, 원산지 표시 철저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도 병행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중심 역할을 해오고 계신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설 명절을 맞아 군민들이 가족과 함께 전통시장을 찾아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은 설 명절을 맞아 2월 한 달간 카드·모바일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이용 시 3% 추가 캐시백을 제공하는 특별 할인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곡성, 기본소득·설 민생 현안 총점검

응급의료·취약계층 돌봄 집중 등 소통 강화

곡성군이 올해 시작한 농어촌 기본소득과 군민과의 대화, 설 명절 대비 대책 등 생활과 직결된 정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9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청사 대동마루에서 공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조회를 개최했다. 정례조회는 기본소득 주민 설명회와 군민과의 대화, 업무보고회,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청회 등 연초에 집중된 일정과 함께 조류독감·산불 대응까지 겹친 상황에서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군은 기본소득 주민 설명회와 군민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한 해 군정 방향을 공유하는 업무보고회와 행정통합 관련 논의까지 연이어 소환해 왔다. 여기에 조류독감과 산불 대응이 더해지며 현장은 연일 분주하게 움직였다. 특히 각 부서가 역할을 나눠 신속하게 대응하면서도, 예정된 정책 추진을 멈추지 않고 병행해 왔다.

군민과의 대화와 관련해서는 접수된 건의사항을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민원인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는 과정 자체를 중시해 달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도 진행 상황과 한계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안내하는 소통 방식을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접수도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앞선 마을 방문 접수에 이어 읍·면사무소 창구에서도 안내를 이어가며, 신청 과정에서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기본소득이 생활 안정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접수 단계부터 현장 중심으로 운영해 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설을 앞두고는 교통과 안전, 재난 대응, 응급의료, 취약계층 돌봄, 물가 관리까지 전 분야를 다시 살폈다. 군은 현장 확인과 부서 간 협력을 통해 명절 기간 불편 요소를 최소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먼저 챙기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명절을 계기로 공식 사회의 청렴 문화도 함께 공유됐다. 불필요한 관행을 줄이고, 감사의 마음은 말과 태도로 전하는 조직 분위기를 이어가며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어 가자는 뜻도 함께 전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정례조회를 통해 기본소득과 군민 소통, 재난 대응, 명절 대책이 각각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점검했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gwangnam.co.kr

고흥우주천문과학관은 설 연휴와 삼일절 연휴, 정월대보름에 고흥우주천문과학관을 정상 운영하고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설 연휴는 달을 보기는 어렵지만 목성과 사계절 중 밝은 별이 가장 많은 겨울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다. 고흥우주천문과학관은 설 연휴(2월 14~18일) 특별 운영을 마친 뒤 19~20일 대체 휴관한다. 이어지는 삼일절 연휴(2월 28일~3월 2일)에도 정상 운영하며, 정월대보름인 3월 3일에는 개기월식 관측회가 이뤄진다. 이번 개기월식은 오후 6시 5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되며, 관측실을 상시 개방하고 다양한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기월식 행사 다음 날인 3월 4일은 대체 휴관한다. 다만 천체 관측은 기상 상황에 따라 진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개기월식 관측회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고흥우주천문과학관은 국내 최대 규모인 800mm 반사 망원경과 동 영상관을 보유하고 있어 우주의 신비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천문과학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광정책실(061-830-6691)로 문의하면 된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고흥우주천문과학관 설날 등 연휴 특별운영